

프랑스의 68 혁명과 알제리의 탈중심주의

-베르베르인의 소수자 권리-

임기대, 김광수

I. 머리말

II. 68혁명: '편견'으로부터의 탈주

III. 독립 후 알제리의 아랍·이슬람화 정책

IV. 베르베르의 봄과 베르베르 문화 운동

V. 맺음말

<국문초록>

68혁명은 프랑스의 사회 변화는 물론 알제리를 비롯한 제 3세계의 탈식민화에 영향을 주었다. 여타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알제리 또한 아랍·이슬람화 정책을 통해 탈식민화 정책을 추구했다. 하지만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알제리 사회에 있던 토착문화를 억압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유발했다. 토착문화인 베르베르인은 타자화 되어 근대의 '중심'에 반기를 둔 68혁명처럼 알제리 내에서 이후 저항을 통한 투쟁을 하였다.

본고에서 우리는 아랍·이슬람화 정책의 핵심 요소와 이 정책으로 인해 주변화된 베르베르인의 상황을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 이후 구성된 정부에 의해 진행된 아랍화 정책의 실패, 그로 인한 베르베르인의 권력, 즉 '중심'에 대한 반기가 본격화되면서 알제리 사회는 '소수자'의 저항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베르베르의 봄'과 저항과 평화, 희망을 노래한 카빌리의 가수 마투브 루네스의 살해는 알제리 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그로 인한 문화적 변동이 일어났다.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베르베르문화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베르베르문화는 오늘날 알제리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는 한 개인, 즉 마투브 루네스라는 '소수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는 소수자의 지위에서 있던 베르베르 문화를 '다수자'의 영역에 올려놓았으며, 오늘날 알제리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

I. 머리말

프랑스의 68혁명은 '5월 혁명'이라고도 불리며,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여 시작된 혁명이다. 이 저항 운동은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파리 낭테르 대학 학생들과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물질주의 및 인간 소외 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의 저서 『시뮬라시옹』¹⁾이 주시하는 바도 바로 이런 문제와 동일하며, 그

1) 장 보드리야르의 1981년 저서이다. 정확한 우리말 저서명은 <시뮬라시옹: 포스트모던 사회문화론>이다. 현대 이미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강력한 모티브가 된 책이기도 하다.

기원은 바로 68혁명에 있다. 68혁명은 또한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성이나 동성애자, ‘서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의 ‘동양’ 등과 같은 소수자 운동으로 확산시켜갔다. 여기에서 ‘소수자’는 동일성의 폭력 아래(푸코의 의미에서) 침묵했던 ‘타자’를 일컫는다. ‘타자’는 또 다른 ‘소수자’의 의미이다.

독립(1962년) 후 알제리에서 전개된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탈식민주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주창한 세력이 ‘중심’이 되어 ‘다수자’, 즉 ‘권력’이 된 상황과 맞닿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랍·이슬람화 정책이 어떻게 알제리 사회에서 아랍·이슬람 이외 요소에 대해 어떻게 타자화했는지를 보고자 한다. 알제리에서 ‘중심주의(centrism)’에 입각한 타자화 정책은 ‘소수자’의 저항에 부딪혔고, 그런 ‘소수자’는 알제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탈식민화과정에서의 아랍·이슬람화 정책, 그로 인한 타자화 현상, 그리고 타자들의 운동, 즉 ‘소수자’ 운동이 알제리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고에서 우리는 ‘근대’라는 개념을 통해 ‘중심주의’적 관점으로 세계와 지역을 바라보았던 관점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관점을 알제리 사회에 투영하며, 독립 이후 탈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아랍·이슬람화 정책이 또 다른 중심주의적 경향이었음을 보고자 한다. 공교롭게도 알제리에서 아랍·이슬람화 정책이 성행한 시기는 프랑스의 경우 68혁명의 파고가 사회를 휩쓸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은 알제리 사회에서 타자화 된 ‘소수자’에게도 영향을 주어 사회의 변혁을 점진적으로 주도해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아랍·이슬람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다원화 된 사회로 가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알제리에서는 ‘소수자’ 운동이 급진적으로 전개된 시점은 1980년대 베르베르운동이 발생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알제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소수자’ 운동(베르베르운동)은 ‘다수자’의 위치를 점해가며 알제리 사회를 다원화된 사회로 진입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문제를 살펴보면서 현대 알제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다원성의 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알제리의 현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68혁명: ‘편견’으로부터의 탈주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것이나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겪는 ‘지식이나 경험 이전의 판단’을 의미한다. ‘편견’은 특정 개인이 어린 시절 소속 집단에 의해 주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성장해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인종이나 지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타자에 대해 갖는 ‘야만성’ 등의 개념은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다. 편견이 심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자신보다 열등한 대상이나 문화, 그리고 모든 타자화 된 것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는 경향을 보인다.

‘편견’에는 자라온 환경과 사회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기제는 자본을 독점한 거대 대중매체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은 욕망을 자극받고 무의식적으로 사고가 형성된다. 그것은 대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입되며, 이렇게 주입된 이미지는 타문화에 대해 객관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오직 미디어로 비춰진 이미지로만 이해하게 한다. 알제리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 또한 ‘아랍·이슬람’이란 맥락에서 이해하거나, 테러의 이미지만을 떠올려 타국(특히 프랑스에서)의 알제리 이민자들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이해하게 된다.²⁾ 우리가 미디

2) 이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예민 난민으로 인해 겪는 현상과도 흡사하다. 예멘 난민이 무슬림들이기에,

어를 통해 습득된 편견에 의해서만 이 지역(민)을 보기 때문이다. 이외에 학문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 학문의 편식, 미국식 시선에 의한 제 3세계의 해석, 이로 인한 타자화가 우리 사회에의 고정된 담론을 형성한다. 사물을 타자화한다는 것은 상호존중의 동등한 관계성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우열에 기반을 둔 위계적 관계로 사물과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편견을 습득하게 만든 비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에 의해 형성된 ‘중심주의’ 담론은 우열에 의한 담론을 기반으로 백인을, 남성을, 이성을 우위에 놓으며 유색 인종과 여성, 비이성을 타자화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형성된 ‘근대’의 이분법적 구도는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우리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타자화 된 대상에 의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되었다.³⁾ ‘근대’ 이후의 구조주의(structuralism)조차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알제리 지역을 서구적 시선에서 아랍·이슬람 지역이란 이유로 타자화하고 제 3세계 지역이라 보는 것 자체가 이 지역 전체를 타자화된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 서구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편견’으로부터의 탈주는 텍스트 안의 담론과는 다른 실천적 사유에 있다. 이는 ‘근대성’과 ‘보편성’이라는 ‘서구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며, 알제리를 다시 보며 재구성해보려는 의지이기도 하다. 학문적 연구 방식에 있어서는 문헌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현지 조사의 실증적 방법을 중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⁴⁾ 이런 시도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보았던 알제리에 대한 다양성을 포착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근대성에 포착된 ‘보편성(universalism)’이나 ‘언어학은 과학이다’라는 명제를 인문학에 던져준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방식으로는 알제리의 다양성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알제리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편성, 과학성에 근간 한 규칙(rule), 법칙(law)과 같은 절대적인 것 보다는 다양한 복합체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우리는 지역에 대한 여러 관계를 풍부하게 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편견’으로부터 탈주하여 문화적 ‘소통 공간’으로서 알제리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흔히 알제리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중 하나는 혼란을 부추기는 (프랑스의) 이민자 집단, 알카에다나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경험한 알제리는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⁵⁾으로 나타난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와 같은 마그레브 지역의 역사는 말 그대로

그들 모두가 테러리스트와 흡사하다거나 한국의 기존 질서를 해칠 것이라 우려하는 시각은 아랍과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극단적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3) 신승환(2016: p.10)은 이를 ‘근대’가 관통하는 핵심어라고 보며, 68혁명 이후 탈근대 담론이 이에 대한 전체적인 반성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68혁명과 함께 프랑스 후기구조주의가 근대의 기획 전체를 반성하려는 새로운 사유체계를 만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4) 역사학이 문헌에 기반을 둔 연구인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제리의 경우 연구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민지배 국가(프랑스)의 자료가 알제리에서 생산된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의 시각에서 알제리의 역사를 보려고 한 시도로써 더 세밀한 분석에 대해서는 더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감사를 표하고, 이후의 연구 작업에서 보완해갈 것이다.

5) 그렇다고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지역에 이슬람 극단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지금도 테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반드시 종교적인 신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교적 신념 이외에 정치 사회, 그리고 ‘아랍의 봄’을 촉발시킨 튀니지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적 요인에서까지 기인한다. 단순히 종교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

로 다양성을 품고 있는 지역이며,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지역이다. 토착민인 베르베르 문화를 포함한 페니키아, 로마, 반달, 비잔틴, 아랍·이슬람, 프랑스, 스페인, 터키 등의 이문화가 상호 공존하고 이 지역민들은 이런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역사적 과정을 통해 수용해오고 있다. 문화의 힘이 내재적인 '구조'에 있지 않고 조화와 질서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21세기 여전히 새롭게 다양성의 공존이란 화두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상호 공존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편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 문화라는 지배 문화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타 종교에 대해 관대한 편은 아니지만,⁶⁾ 타 문화와 타 인종에 대해서는 거의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백인과 흑인은 물론 지중해 특유의 인종색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다. 의도적인 뒤섞임이 아닌, 역사 이래로 자연스럽게 섞인 그 자체의 뒤섞임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와 토착문화인 베르베르와 아프리카 문화는 배타적인 문화가 아닌 오히려 주류 문화인 이슬람 문화와 어우러져 더 풍요로운 문화를 키워나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과도 깊은 관계를 갖는다.

우리가 알제리를 기존 방식, 즉 아랍·이슬람이라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럴 경우 '이문화간 소통지역, 알제리'는 근대 개념을 뛰어넘게 하면서 탈근대적 사유의 성찰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지금까지 알제리는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주변 지역'이었고, 지중해의 역사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남프랑스와 그리스 로마의 지중해와 같은 바다였고, 동시에 이슬람의 바다로 소통해왔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기존의 역사적 관점에서 탈주하여 새롭게 이 지역을 본다면 정해진, 구조적 위계 속에 머물지 않으면서 다원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타자화된 '소수자'에 관심을 갖게 한 68혁명의 담론이 여전히 지역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풍요로움을 더해줄 수 있는 '사건'이었음을 말해준다.

III. 독립 후 알제리의 아랍·이슬람화 정책

그렇다면 알제리의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알제리의 '소수자' 베르베르의 문제와 아랍·이슬람화 정책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아랍·이슬람과 소수자 '베르베르'

독립 후 탈식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아랍·이슬람화 정책의 핵심은 단연 아랍어와 이슬람이다. 아랍·이슬람화 정책을 쓴 데에는 프랑스의 식민정책도 한몫을 했다. 알제리는 1832년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에서도 거의 가장 늦은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다. 8년간의 알제리 전쟁(1954~1962)은 알제리인들을 결속시켰으며, 결속의 연결고리는

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임기대 2017).

6) 대부분의 마그레브 국가에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고 기독교 등의 타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역민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아랍과 이슬람이었다. 문제는 독립 후 프랑스어와 문화를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채택한 아랍·이슬람화 정책이 알제리 내 소수자인 ‘베르베르(Berber)’⁷⁾ 문제를 동시에 척결대상으로 삼으며, 타자화시켰다는 것이다.

마그레브에서 ‘베르베르’라는 용어는 억압과 동시에 자유의 표상이다. 특히 알제리의 베르베르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의 위상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향후 마그레브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다. 프랑스의 식민지배 이후 지속된 베르베르 운동은 20세기 후반 들어 다문화 국가이자 민주국가 알제리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미 2016년 아랍어와 더불어 알제리의 공식어가 되었고, 2018년에는 베르베르인들의 정체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옌나예르(yennayer)’⁸⁾가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식 축제일이 되었다. 하지만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문화적 독자성을 주장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독립 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각종 테러 집단과 연계되기도 하면서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기도 하다.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베르베르운동은 알제리 내 문제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프랑스를 위시한 벨기에, 네덜란드, 심지어 캐나다까지 외국의 베르베르 이민자들은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알제리에 있는 베르베르인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⁹⁾ 알제리의 베르베르인도 외국에 있는 베르베르 이민자와의 연대에 적극적이다. 이민자와의 연대는 베르베르어를 사용하는 모로코, 말리, 니제르, 리비아, 심지어 미약하지만, 서부 아프리카의 세네갈까지도 확산되어가는 분위기이다. 특히 마그레브 국가 간의 연대감은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한 결속력을 보인다. 지난 20년 사이 정체성 찾기 운동에 서로 연대감을 표하면서 마그레브의 베르베르인은 서로 간의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다.

2011년 모로코에서 공식어의 위상을 확보한 이후 알제리에서도 베르베르인은 자신들의 언어, 즉 베르베르어를 공식어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언제까지 눈 감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되었다. 정부와 베르베르어권 화자 간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종 테러 범죄와 문화·예술적 행위를 통한 정부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미 모로코 사례에서 알제리 베르베르인들은 “모로코에서 공용어가 되었다고 현재 베르베르어가 모로코에서 아랍어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권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¹⁰⁾ 이런 측면에서 알제리에서 베르베르어 위상과 관련한 움직임은 모로코와는 달리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알제리, 그중에서도 알제리 내 베르베르어권의 위상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달라 보이고 과격할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용어가 될 경우 모로코와 달리 실제의 영역에서 베르베르어 활성화라는 측면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사항을 고려해보면, 알제리 내 베르베르의 문제는 ‘소수자’이지만 ‘다수자’의 영역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는

7) 베르베르와 관련된 용어가 아마지그, 이마지겐, 타마지그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 지역의 토착민을 언급할 때 ‘베르베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8) 우리말로 하면 ‘새해’, ‘신년’을 의미하는 옌나예르가 2018년 1월부터 공식 축일이 되면서 베르베르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립이 더욱 활발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9) 현재 프랑스에만 베르베르 관련 단체는 100여 개에 달한다. 이들 단체는 자신들의 정체성 찾기는 물론 소수자 운동을 떠나가고 있어 프랑스 내에서도 주목받는 단체가 되고 있다 (임기대 2016).

10) 모로코의 신헌법(2011년 7월 법)이 베르베르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고는 하지만 아랍어와는 달리 모로코인에게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공용어 지위를 부여할 뿐 실제 사용이라는 측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tamazgha.fr. Tamazight langue officielle, un mensonge politique, 2014.06.24.

향후 마그레브 전체 문화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알제리의 아랍·이슬람화 정책

알제리에서 베르베르어가 논쟁의 중심이 된 것은 독립 후의 집권 세력과 맥을 같이 한다. 새 국가를 건설한 집권 세력은 프랑스 문화를 일소하고자 아랍·이슬람화 정책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낸다. 아랍·이슬람화 정책의 핵심은 독립을 겪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탈식민화(Decolonisation)’이다. 당시 추진한 탈식민화 정책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¹⁾

1)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행정체계 강화: 새 정부는 프랑스식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행정체계를 만들면서 피폐화된 지방 경제를 사회주의 체제에 따라 제1차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해가도록 했다.

2) 교육체계의 정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알제리인의 정체성이 황폐해졌다고 생각한 새 정부는 이슬람 정신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정책을 강행했다. 독립과 동시에 상승한 국민의 교육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육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문제는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식 교육과 문화에 익숙한 교육자가 대부분이었고, 아랍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 혹은 교육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과 다른 지역 이슬람학자들이 대거 들어왔지만, 이들은 문헌 아랍어로 알제리 젊은이를 교육했다. 하지만 이미 알제리인 대다수가 방언 아랍어와 10개 정도의 베르베르 방언, 그리고 프랑스어 문장구조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3) 친 소련 사회주의 노선: 새 정부는 친소련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면서 농지 및 석유회사 등과 같은 기업들의 국유화를 선언하였고 모든 국가시스템을 사회주의식으로 운영하였다. 1973년 석유과동을 계기로 비동맹 제3세계 세력이 국제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알제리는 비동맹 의장국으로서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실제 알제리는 1973년 비동맹국가 회의를 개최하여, 반서구주의 정책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독립 정부의 탈식민화 정책을 요약하자면 사회주의 국가와 아랍·이슬람국가 건설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아랍화와 사회주의는 불가분 관계에 있다.¹²⁾ 그 결과 프랑스어 말살 정책이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소수어인 베르베르어·문화의 말살 정책도 병행되었다. ‘중심’이자 ‘권력’인 아랍·이슬람화를 위해서는 다른 문화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새 정부는 중동지역에서 아랍학자를 들여와 교육기관에서 아랍어를 가르쳤

11) 알제리에서의 탈식민화 정책의 핵심은 프랑스문화의 척결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임기대, 「독립 후(1965~1978) 알제리의 언어교육정책 : 탈식민화 정책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연구』. 제 52집 (2010). p.359-389.

12) 초대 대통령을 지낸 벤 벨라(Ben Bella, 1916~2012)의 1963년 7월 5일 담화 : “l’arabisation est nécessaire, car il n’y a pas de socialisme sans arabisation..., il n’y a d’avenir pour ce pays que dans l’arabisation.”(역 : “아랍화는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아랍화 없는 사회주의는 없기 때문이다... 아랍화를 추구할 때만이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 뿐이다” (아마지그 월드 2016).

다. 하지만 식민지배 동안 프랑스어에 익숙한 알제리인에 대한 아랍어 교육정책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만다.¹³⁾

교육에서 문헌 아랍어 사용을 통한 아랍어 정책을 강행했지만, 일상에서 잘 확산되지 않은 이유는 모국어인 알제리 아랍어, 즉 ‘dardja’가 문헌 아랍어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dardja’는 알제리를 비롯한 모로코, 튀니지인이 사용하는 방언 아랍어이다. ‘dardja’는 역사를 관통하며 형성된 다양한 방식의 언어사용이 오늘날 아랍어라는 형태로 마그레브 지역에서 고착화된 언어이다. 마그레브 지역에서는 라틴어와 토착어인 베르베르어, 이후 아랍어가 공존해왔다. 아랍이 지배한 15세기 이후와 프랑스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터키인, 기독교 배교자, 기독교 포로, 유대인, 무어인의 5개 언어 공동체가 있었고, 심지어 해적들조차 아랍어, 터키어, 링구아 프랑카¹⁴⁾를 사용할 정도로 이 지역은 역사 속에서 언어의 ‘교차와 혼성’을 다양하게 겪어 왔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용되는 ‘dardja’는 알제리 내 가정이나 학교, 지역,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문헌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다. 단순한 구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dardja’는 알제리인에게 모국어의 역할을 한다. 독립 당시에는 10여 개의 베르베르어 방언과 ‘dardja’, 그리고 프랑스어가 사용됐지만 새로운 권력은 단일어로 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진행했다. 표준어와 중앙집권화 된 국가 건설을 내건 근대기에 ‘중심’ 혹은 ‘중앙’이란 논리로 나머지를 타자화시키는 방식과도 같은 정책을 실행한 것이다. 이렇게 ‘아랍·이슬람 중심주의’ 논리는 알제리 국가 개조에 진력하면서 소수어인 베르베르어를 억압해왔다.

아랍어 교육 정책은 일견 성공하는 듯 보였다. 수업은 학생들이 알아듣든 못하든 아랍어로 진행하여 아랍어로 끝냈고, 학생들은 무슬림의 언어로 아랍어는 존중했지만, 일상에서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배운 아랍어는 꾸란의 언어, 즉 ‘문헌 아랍어’였기 때문이다. 알제리인은 교육 현장 등의 영역을 벗어나면 생활 속의 아랍어인 ‘dardja’를 사용한다. 알제리의 국어는 아랍어, 즉 ‘문헌 아랍어’이지만, 이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Bouhadiba Farouk: 2004. p.500). 형식적인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문헌 아랍어’와는 달리 알제리 아랍어, 즉 ‘dardja’는 교육 수준이나 성별, 베르베르어권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베르베르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아랍어,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아랍어, 프랑스어에 익숙한 아랍어, 혹은 소수이지만 스페인이나 터키 문화에 익숙한 아랍어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아랍어와 가정에서, 지역별, 길거리, 심지어 성별로 사용되는 아랍어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알제리인의 언어사용을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법적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¹⁵⁾ 이는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 아랍어가 중동의 아랍어와

13)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아랍어정책에 국한하고자 한다.

14)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는 중세 지중해 연안에서 사용한 혼성어를 말하며, 소문자 표기 lingua franca는 상호 소통을 위해 공동어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언어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 사용된다. 최은순, 「지중해 연안의 링구아 프랑카의 교류의 특징과 그 유형에 관한 고찰」, 『지중해 지역연구』 제 16권 제 4호(2014). p.78.

15) “La dardja algérien est notre langue maternelle. On retrouve la dardja dans les annonces publicitaires, parfois même dans les discours politiques. Il a même ses propres règles grammaticales. Et pourtant il n'a aucun statut officiel”. (역 : 알제리 dardja는 우리의 모국어이다. 이 언어를 광고판, 심지어 정치 담화에서도 볼 수가 있다. 심지어 dardja는 문법적인 규칙이 있다. 그런데도 어떤 공식적인 위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Les

어떻게 다른지를 근본적으로 구별 짓게 한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어와 방언을 말하는가? 마그레브의 언어사용은 도시와 농촌(또는 산지), 학식 있는 엘리트 집단과 문맹인 집단 간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용되는 언어나 방언의 음운 자질, 문법자질, 어휘자질과 더불어 의사소통 기능은 동방 이슬람과는 구별되는 서방 이슬람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었다 (Lacostes, Yves & etc 2004: p.151).

아랍어 정책의 실패, 프랑스어의 사용이 일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정부는 식민 지배어였던 프랑스어를 ‘문헌 아랍어’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탈식민화 정책으로 인해 소수어인 베르베르어 또한 제도적으로 아무 인정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 제외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베르베르어 화자가 생각하는 소외감은 생각보다 깊었고, 그 결과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중앙정부 혹은 아랍·이슬람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게 된다. 민족주의 혹은 아랍·이슬람주의(중심주의)를 내걸면서 역설적으로 베르베르어를 억압하여 현재까지 알제리의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¹⁶⁾

IV. 베르베르의 봄과 베르베르 문화 운동

아랍·이슬람화 정책의 실패와 소수문화 억압은 알제리 내 베르베르인, 그중에서도 카빌리 지역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들의 불만은 자국 내에서 표출되기도 했지만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민자들은 68혁명을 전후하여 프랑스 사회에 팽배한 탈권위주의, 중심주의,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관심에서 자국의 베르베르인과 문화를 보았으며, 대부분의 이민자가 베르베르인들로 구성된 이민자들은 프랑스 내 베르베르공동체와 아카데미한 기구 창설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은 물론, 알제리 내 사회 변화를 주도해갔다(임기대 2016)¹⁷⁾.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알제리 카빌리 지역에서 발생한 베르베르의 봄(Spring's Berber)과 베르베르인의 상징이 된 가수이자 시인 마투브 루네스의 암살 사건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알제리 내 ‘소수자’ 운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베르베르의 봄

1980년 알제리 카빌리(Kabyllia)¹⁸⁾에서는 알제리 정부의 베르베르 문화 억압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고 발생한 시위는 1980년 3월 10일 티지

Algériens savent-ils réellement quelle est leur langue?” *Tout sur l'Algérie*, (2015.04.23.).

16) 실제로 ‘문헌 아랍어’를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당시 중동의 학자를 통해 중동에 만연한 <무슬림 형제단>의 이슬람 사상에 물든다. <무슬림 형제단>이 알제리에 들어온 건 1970년으로 이는 오늘날 알제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모태가 되어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17) 특히 1968년 창설된 <베르베르 아카데미>는 베르베르인들이 결집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68혁명의 중심이었던 파리 8대학에서 70년대를 중심으로 베르베르 연구 모임 등을 결성하며, 프랑스에서 베르베르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해주었다. 이들은 프랑스와 알제리(특히 카빌리)를 오가며 자신들의 정체성 회복 운동을 주도해갔다.

18) 알제리 동쪽 약 7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베르베르 최대 거주지이다. 주 도는 티지우주(Tizi-ouzou)이다.

우즈 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몰루드 맘무리(Mouloud Mammeri)의 시(詩) 강연을 금지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베르베르인들이 주장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문화에 관련된 시위일지는 중요해 보인다.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Chaker 1982, Masin 2004).

▶1980년 3월 9일 일요일 - 알제리 정부의 시위 단속 및 지속적인 문화행사 방해

지난 2년 반 동안 티지우즈(Tizi-Ouzou)대학교는 3개의 동맹파업을 벌인 곳이었다. 마지막 동맹파업은 매우 격렬했는데 1979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발생했다. 대학당국은 학생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은 베르베르 지도자 또는 베르베르-마르크스주의자(Berber-Marxists)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랑스에서 학업을 마친 알제리 교원들은 감시당하거나 때로는 위협을 받았다. 베르베르 문화행사에 대해 알제리 정부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다. 베르베르의 대표적인 가수인 아이트 멩겔레트(Ait Menguellet)와 이디르(Idir)의 공연을 금지하였다. 1980년 3월 10일 몰루드 맘무리의 강연에 대해 이미 며칠 전부터 포스터로 공지를 하였다. 그러나 포스터 중 여러 개가 찢겨졌으며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한밤중까지 티지우즈의 총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강연을 취소한다고 경고 했다.

▶1980년 3월 10일 월요일 - 몰루드 맘무리의 “오래된 카빌리 시(詩)(old Kabyle poetry)”에 대한 강연이 금지됨

왈리(Wali : ‘군수’ 또는 ‘시장’에 해당하는 관리)는 강연을 위해 출발한 맘무리씨의 신원을 확인 한 후 "공공질서 교란의 위험"이 있는 인물이라는 구실로 "오래된 카빌리 시(old Kabyle poetry)"에 대한 강연 금지를 구두로 전달했다. 아울러 즉시 티지우즈를 떠나라는 명령을 했다. 대학교 총장과 사무총장은 맘무리의 강연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4시 30 분경 하스나우아(Hasnaoua)에서 강연 금지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약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음날 5월 11일 화요일 9시에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1980년 3월 11일 화요일 - 티지우즈에서 첫 번째 거리 시위 발생 / 베르베르 문화에 대한 구호 / 고등교육부장관에게 공개서한 작성

10시 15분에서 12시 15분까지 2시간 동안 500 명에서 600 명이 모였으며, 결국 약 700 명이 도시의 주요 도로로 나가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했다.

"베르베르 문화 : 대중문화"
"Wali, CNP가 맘무리의 강연을 금지하였는가?"
"문화 억압을 멈춰라!"

프랑스어 구호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억압을 타도하라!" - "Wali, CNP, 암살자"

카빌리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가 이어졌다.
"베르베르어는 우리 베르베르인의 언어다"
"우리는 부러질/깨질지언정 구부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불의에 지쳤다!"

경찰, 헌병대, 소방서는 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부서지만 시위진압을 위한 개입을 원하는 않았다. 도시의 활동이 마비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창문에 나와 시위대를 보고 있다. 물론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지만 지지를 위한 명확한 시위는 없었다. 단지 몇 명의 노인 여성들이 감히 자신의 발코니에서 "voyous"(불량배들)를 외쳤다. 오후에는 티지우즈 대학교 알제리 교원 협의회에서 청원서를 작성하였다. 고등교육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의 형태로

특히 문화 표현의 자유, 특히 베르베르 언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편지에는 40여명 이상의 서명(당시 교원의 4/5)하였다.

▶1980년 3월 12일 수요일 -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작성

티지우즈 학생 총회에서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마련했다. 이 편지는 나중에 수천 개가 인쇄되며 널리 배포되었다(알제, Boumerdès 등지로). 비교적 온건한 이 공개서한은 광범위한 내용을 인용 한 국가헌장(National Charter)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베르베르 언어와 문화 발전의 권리를 주장하며 베르베르어를 제2의 국어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80년 3월 13일 목요일 - 탄원서 작성과 구호를 통해 정부를 비판, 외국에 사건이 소개되기 시작

알제 경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s of the Algiers)의 연구원들은 개신교부(Protestant Ministry)에 맘우리씨의 강연 금지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주도했다. 이 탄원서에 40명이 서명을 하였고 교원 3/4가 참여했다. 3월 12일에서 13일 밤 사이에 부두아우(Boudouaou)와 티지우즈 사이에서 도로 표지판과 버스 승차대 광고가 검은 페인트로 다음과 같이 덮여 있었다:

"민주주의", "이 나라에 아이트 아메드(Ait Ahmed : FLN 전사)를! "문화적 제노사이드를 멈추라! "Neo-FLN-파시스트 ", "모든 반대자들! "

구호가 티지우즈에 보고되었고 산악지대에서는 도로 곳곳에서도 발견되었다. 목요일 13일 모두 흰색 또는 분홍색 페인트로 칠한 구호들이 정부 당국에 의해 숨겨졌다. 같은 날 티지우즈에서 발생한 사건이 외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짧지만 정확하게 11일 발생한 사항이 프랑스 일간지 Libération에 보도되었고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1980년 3월 15일 토요일 - 학생대표가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여 공개서한을 전달

티지우즈 학생대표가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학생대표를 맞이한 A. Benhabyles 사무총장은 다소 놀랐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학생들은 베르베르어로 쓴 시위내용을 그에게 전달하였고 대통령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했다.

▶1980년 3월 16일 일요일 - 사회주의자전선(FFS)당이 수도에서 티지우즈의 시위를 알림. 시위에 젊은 학생과 여자들이 많이 참여함

알제에서 사회주의자 힘 전선(FFS)이 전단지 배포하여 학생들의 시위(6개월 동안 3번째)에 대해 알렸고 티지우즈의 사건에 대해 소개하였다. 시위자의 수가 2,000명이라고 다소 과장되게 알렸다. 16일 일요일, 17일 월요일, 18일 화요일에 Larbaa Naït Irathen, Azazga, Aïn El Hammam 등지에서 3일간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대다수 젊은이들(고등학생들 등)이었으며 젊은이들과 나이 많은 여성들도 참여했다.

▶1980년 3월 18일 화요일 - 시위가 격화되어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 우려

Larba, Azazga 및 Aïn El Hammam의 시위를 확정하였다. 사람들은 때때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며 특히 성인 남성들은 "우리는 내전으로 빠져 들 위험이 있다"라고 두려워했다.

▶1980년 3월 19일 수요일 - 고등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하며 강연 자제를 요청

맘우리씨는 처음으로 고등교육부 장관인 Bererhi로부터 모호하지만 "꿀이 발라진(honeyed)"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장관은 그를 만나 Ben Aknoun대학교에서 국가/국민의 문화에 대한 주제로 열릴 예정인 강연에 참여하지 말도록 강권했다.

▶ 목요일, 1980년 3월 20일.

맘부리씨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식민주의의 진정한 협력자라며 공격을 받았다. 또한 매우 혼란스러운 논설이 있는데 그 끝은 '아프리카 혁명'에서 티지우즈의 분쟁을 야기한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카빌리의 베르베르인은 산악지역에 살고 있으며 강인하며 자유로운, 고귀한, 민주적인, 음악을 사랑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20세기 초 프랑스로 이주한 최초의 알제리 무슬림이며 68혁명을 전후하여 프랑스로 이주한 가장 큰 북아프리카 이민자 집단이 되었다. 카빌인은 프랑스어를 비롯해 프랑스의 평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식 등 프랑스의 이념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장 주목할 만한 알제리 민족주의 운동조직을 1920년대에 최초로 조직하기도 했다.¹⁹⁾ 이후 FLN(민족해방전선)이 출현하는데 카빌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독립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독립 이후 베르베르인은 자신들의 언어가 사라지고 정체성이 공격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독립 국가를 만드는 데 이들이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르베르인이라는 정체성은 아랍·이슬람화 정책을 하려는 권력에게는 반동적인 세력이었다. 프랑스어 문화를 일소한다고는 했지만 당연히 베르베르인의 언어와 문화는 억압의 언어이자 문화가 된 것이다.

카빌인의 전통제도인 마을위원회(djemaat)와 종족위원회(aarouch)는 민주주의, 공동체의 가치와 평등주의에 대해 본능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알제리 정부의 아랍민족주의와 상의하달식 전체주의 정책에 대해 저항하도록 만들었다. 많은 카빌인은 이슬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과 신 사이의 신앙관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반대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이슬람, 꾸란의 언어인 아랍어 강요, 1960년대 이집트, 중동 지역에 출현했던 이슬람근본주의를 경계하였다(주17 참조). 독립 이후 중동 지역에서 온 많은 아랍어 교사들이 알제리 사회에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 것은 이들에게는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카빌인은 1920년대 압델하미드 벤바디스(Abdelhamid Ben Badis, 1889~1940)가 조직한 무슬림 근본주의 조직인 울레마(ulema, '학자들'이라는 뜻)에 대해 "제국주의의 반동적 조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Morgan 2011).

카빌인이자 알제리 독립 운동을 이끈 아이트 아메드(Ait Ahmed, 1926~2015)가 체포된 이후 그가 주도해서 창당한 FFS(사회주의 힘 전선)의 활동은 금지되었고 알제리 베르베르인의 저항은 지하 조직이 되었다. 68 혁명이 시작되면서 프랑스로 이주한 카빌인을 중심으로 베르베르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68년 "베르베르 아카데미" 이후, 1979년에 '베르베르문화운동(Berber Cultural Movement, MCB)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언어와 역사, 문학, 음악을 중심으로 자국의 문화운동에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당시 프랑스 내 베르베르 운동은 문화적 저항으로 정치적 저항은 아니었다 (임기대 2016: p.157). 베르베르인들은 무엇보다 베르베르어의 국어 및 공식어 채택을 주장했고, 알제리는 세속주의와 평등주의, 다문화,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베르베르인의 자치나 완전한 베르베르 국가 알제리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1990년대 10년 간의 '암흑 시대'(décennie noire)는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 출현을 불러왔다. 무슬림이 아닌 사

19) 메살리 엘하즈(Messali el Hadj, 1898~1974)가 조직한 북아프리카의별(L'Étoile Nord-Africaine : ENA, French for North African Star)로 파리의 카빌인이 주축이 되어 1930년에 창설하였다.

사람들은 숨쉴 수조차 없는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카빌리의 베르베르운동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일부 예술가, 문화운동가를 중심으로 활동은 계속되었다. 1990년대 말 카빌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노래 한 가수 마투브 루네스는 이렇게 활동하다가 암살당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그의 암살은 카빌리는 물론 알제리 내 문화의 정체성과 ‘소수자’ 권리를 주장하는 거대한 ‘사건’(event)이 되었다.

2. 마투브 루네스와 베르베르운동

1998년 6월 25일 약 12시 30분경 카빌리의 티지우즈 산악지역에서 두건을 쓰고 총을 든 사람들이 도로에 가짜 방어벽을 만들어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공격하여 운전사는 사망하고 세 명의 여자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당시 이런 종류의 사건은 알제리에서 특별히 주목받을만한 사건이 아니었다. 알제리는 90년대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매일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알제리 현대사에서 ‘중심’, ‘권력’이 어떻게 ‘주변’과 ‘소수자’를 인정하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살해당한 운전사는 마투브 루네스로 그는 수십 년 동안 ‘베르베르문화운동’에 앞장서 온 유명한 가수이며 작곡가였기 때문이다.

카빌인들은 마투브 루네스(Matoub Lounès, 1956~1998)의 죽음을 알제리와 해외의 베르베르 이주사회에 곧바로 알렸고 그의 죽음에 대해 분노했다. ‘주변’에 머물렀던 ‘소수자’가 ‘다수’의 중심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천 명의 분노한 시민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티지우즈의 모하메드 네디르(Mohamed Nédir) 병원에 운집했다. 몰려든 군중은 “정부, 암살자(Pouvoir, Assassin : Government, Assassins)”, 제루알 암살자, 이슬람주의자 암살자(Zéroual Assassin! : Islamists, Assassins!)“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의 죽음에 대해 국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티지우즈를 비롯한 카빌리 전역에서 젊은 시위자들이 지방 정부 사무실을 공격하여 공공재산을 파괴하였고 폭동진압 경찰과 충돌하였다. 며칠 동안 베자이야(Bejaia, 수도 알제에서 약 400km 동쪽의 카빌리 도시)를 비롯한 카빌리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정부건물, 정당 사무소, 은행, 상가를 공격했다. 6월 28일 마투브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 3명의 청년이 경찰의 유탄에 또 다시 사망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파리에서는 배우, 정치인, 공동체 지도자, 작가, 음악가 등이 모여 그를 추모했다. 베르베르인 가수 이디르(Idir, 1949~)는 아랍어를 공식어로 강제한 7월 5일 새로운 ‘아랍화법’(Arabisation law)의 통과를 비난했다. “마투브는 카빌리의 음유시인이었고 그들은 그의 입을 막고 싶어 그를 살해했다.”, “그는 자유를 노래했고 우리의 자유, 베르베르인의 자유를 노래했다.” 그는 체계바라였다.”라고 주장했다.

알제리 정부와 마투브 가족은 평화를 요구했고 국제사회는 알제리 상황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7월 2일 목요일 미국 국무성 언론담당비서인 제임스 루빈(James Rubin)은 공식적으로 알제리 정부와 국민이 정치적 도구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유엔은 전 포르투갈 대통령이었던 마누엘 소아레스(Manuel Soares)를 알제리에 파견하여 알제리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화를 향한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장베르베르운동(Armed Berber Movement : MAB)’이 출현하여 활동했다. 그들은 쓰러진 동지에 대한 “피의 보복”을 선언하기도 했다(Morgan 2011, Silverstein 1998: p.3).

장례식이 열리는 동안 포스터의 글귀는 그의 삶과 인생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기억과 복수”, “베르베르어 없이 평화 없다.” “아랍·이슬람”, “지옥을 향한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쓰여 있었다(Morgan 2011)

2017년 알제리 야당 정치인 노르딘 아이트 하무다(Nordine Ait Hamouda, 1949~)가 마투브 루네스의 암살 인물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삼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마투브 루네스의 누나(rebel's sister)²⁰⁾인 말리카 마투브(Malika Matoub)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방송에 나온 후 아이트 하무다의 폭로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말리카 마투브 또한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면서 마투브 암살은 알제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고, 그의 암살은 이후 알제리에서 ‘소수자’인 베르베르 관련 정책의 대 전환을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노래와 가사,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²¹⁾

문화적 정체성을 노래한 마투브 루네스는 카빌리의 젊은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1956년 알제리 전쟁 당시 태어난 마투브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경험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일 자리를 찾아 프랑스로 이주하였고, 카빌리 출신 가수인 이디르의 후원을 받아 가수로서 경력을 쌓아갔다. 그의 첫 콘서트는 1980년 봄에 있었는데 “베르베르 봄”과 같은 해였다. ‘베르베르문화운동(MCB)’이 발생한 카빌리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여러 주 동안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전쟁상태나 다름없는 카빌리와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마투브는 군복을 입고 콘서트를 열었고 이후 매년 1980년 베르베르 봄을 기억하기 위해 카빌리에서 콘서트를 열었다(Silverstein 1998, p.3-4).

카빌리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마투브는 정치적인 색을 띠었다. 정치적 색채의 베르베르 가사를 가진 동양적인 샤비(Cha'abi : 알제리와 모로코의 팝 음악) 음악이 혼합된 그의 노래는 결국 알제리 방송에서 금지되었다. 1988년 10월에 발생한 알제의 폭동 기간 동안 그는 경찰에 의해 5발의 총탄을 맞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1992년 내전이 발발하면서 그의 이름은 무장이슬람그룹(Groupe Islamique Armé, GIA)의 암살 목록에 다른 예술가 및 지식인과 함께 올랐다. 그러나 알제리를 떠나달라는 GIA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투브는 알제리에 남아 있었다. 1994년 9월 25일 그는 납치되었고 2주 동안 산속에 있던 GIA 요새에 감금되었다. MCB의 지지자들이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해 ‘전면전(total war)’를 주장하며 압박하자 할 수 없이 그를 석방했다. 그는 석방 당시 조건으로 그의 음악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암살이 있기 전날 밤 마투브는 사후에 발표된 마지막 앨범, “Open Letter to...” 음반 작업을 막 끝마친 상태였다. 카빌리의 작가인 카텡 야신(Kateb Yacine)은 마투브 루네스에게 “노래 저항 투사(Maquisard de la chanson : Resistance fighter of the song)”라는 칭호를 붙여 주면서 그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가수로서 ‘게릴라 가수(guerrilla singer)’로 인정하였다.

자서전에서 밝힌 것처럼 마투브는 뺏속까지 “반군(rebel)”이었으며 그는 알제리 정부의 아랍·이슬람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Matoub 1995: p.16, 40-43). 그는 알제리 정부가 알제리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슬람 근본주의를 발생시켰다고 주장

20) ‘rebel’은 ‘반항자’, ‘반역자’라는 뜻이지만 보통 마투브 루네스를 지칭할 때 자주 용어이다. 그가 카빌인임을 감안하여 카빌인을 rebe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1) 마투브의 가사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3일~1.29일까지 카빌리의 ‘마투브 재단’(Fondation de Matoub)을 방문하면서 목격한 내용들이다. 그가 부른 노래와 가사, 집, 주민, 살해 장소 등을 답사하고, 관련 글을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초기 민족주의 운동이 발생한 이후 알제리에서 베르베르어와 문화가 치열한 논쟁에 휩싸였다. 독립 이후 여당인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은 “이슬람은 나의 종교, 알제리는 나의 국가, 아랍어는 나의 언어(Islam is my religion, Algeria is my nation, and Arabic is my language, 헌법 3조)”라는 구호를 국가 헌장으로 내걸었다. 1960년대 후반 알제리 FLN은 사법 체계와 초등학교 교육부터 아랍·이슬람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알제리 독립 36년 기념식이 열린 7월 5일 발효하였다. 공적인 삶에서 아랍어의 독점적 사용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중한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양보에 직면하였다. 이 법은 1991년 1월 16일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 지도자인 샤들리 벤제디드(Chadli Benjedid)에 의해 추인되었고 1994년 7월 5일 발효가 되었다. 아마지그 고등위원회(High Amazigh Commission : HCA)가 만들어졌고 1996년 비준된 헌법에서 알제리인 국가 정체성의 기초로서 ‘Amazighite(amazighité : 아마지그 사람들, 언어 및 문화 특성을 의미하며 작가인 Mouloud Mammeri가 주창함)’가 채택되었다.²²⁾ 군부는 알리 카피(Ali Kafi)를 중심으로 군사 통치를 하다가 1994년 1월 리아민 제루알(Liamine Zeroual, 1941~1999)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제루알 정부는 1994년 카빌리 학생들이 베르베르어 사용을 금지한 데 대해 1년간 학교수업을 거부하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마투브는 베르베르어가 처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인 저항을 했다. 마투브 시대의 카빌리 행동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알제리에서 아랍어와 함께 ‘공식적(official)’이며 ‘국가적(national)’ 언어로 지정되기를 원했다. 카빌리 시위자들은 마투브 암살에 대해 새로 만들어진 아랍어 전용법(Arabic-only law)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베르베르 단체 간의 정치적 분열 또한 그의 암살로 사그러들었다. 카빌리 지역에서 지리적, 계급적, 세대 간 차이로 인해 분열되었던 문화민주주의연합(Rassemblement pour la Culture et la Démocratie : RCD, Rally for Culture and Democracy)과 사회주의자전선(Front des Forces socialistes : FFS, Socialist Forces Front)과 같은 주요 정당은 경쟁과 반목을 접고 한 목소리로 알제리 정부에 아랍어화로 점철된 언어정책의 폐지를 탄원하였다.

새로운 법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통해 카빌인들은 ‘타마지그, 오늘과 내일(Asa, Azekka. Tamazight Tella): Tamazight, Today and Tomorrow)’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아랍어로 쓴 간판을 가리기도 했다. 마투브의 자서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무기를 들어라(call to arms)”라는 노래(Matoub 1995, p.279)에 응답하여 ‘무장베르베르운동(MAB)’이 마투브의 살인자에 대한 전통적인 피의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새로운 법을 시행하려는 알제리 정부의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 투쟁할 것을 주장했다. 베르베르문화운동, 즉 MCB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폭력적인 불안 사태는 정부의 대응을 약화시켰다. 베르베르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국가가 어떤 처벌을 했다는 것은 보고되지 않았다.

제루알대통령은 베르베르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알제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민주적이고 세속적인 알제리를 위한 마투브의 투쟁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Matoub, 1995, p.280). 카빌인은 ‘재생산의 순환(cycle of reproduction)’을 언급하며 죽은 고인을 신화로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의 삶에 새롭게 부활할 것으로 믿고 있다(Bourdieu, 1977, p.155). 젊은 카빌인은 마투브의 죽음을 정치적

22) <https://fr.wiktionary.org/wiki/amazighit%C3%A9> (검색일: 2018.04.26.).

인 영감으로 변환시켰다. 그의 암살을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요구와 권리를 확대하는데 이용하였다. “반군은 죽었다! 순교자로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The Rebel is dead! Long live the Martyr!)”(Silverstein 1998, p.4).

1993년 마투브의 노래 “Kenza”는 카빌리의 언론인이며 극작가인 타하르 자우트(Tahar Djaout, 1954-1993)의 딸을 위해 만든 것이다. 타하르 자우트는 주간지 알제리 언론 『Actualité』에서 문예활동을 하였고 1993년 『Rupture』(단절)을 창간하였다. 그는 어떠한 정치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며 무력함, 부패와 지난날의 안일함 등 모든 것과 단절해 새로운 알제리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1993년 암살당했다.²³⁾

<노래 1> 켄자(Kenza)(Silverstein 1998: 3)

한국어	타마지그어	영어
오 켄자 나의 딸	A Kenza a yelli	O Kenza my daughter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희생했다	D isefian neghli	We have sacrificed our lives
알제리의 내일을 위해	F Lzzayer uzekka	For the Algeria of tomorrow
오 켄자 나의 딸	A Kenza a yelli	O Kenza my daughter
울지 마라	Ur tru ara	Do not cry

1980년대 ‘베르베르의 봄’이 발생할 당시 마투브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마투브는 프랑스에 갔고 그곳에 있는 알제리 공동체에서 훗날 그를 유명하게 만든 공연을 하였다. “나는 2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다. 군의 목적은 단지 젊은 사람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목적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파리에서 마투브는 ‘베르베르의 봄’이 일어나면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다. “나는 내가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너무 긴장되어 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나의 예술적 행위 사이에 상처를 갖고 있다. 나는 청중 앞에서 노래했고 군인들 앞에서도 했다.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고향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그는 “엘-와드 아이시(El-Wad Aïssi)”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 노래는 희생자를 애도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었다(Matoub 1995, p.66-69).

<노래 2> 엘-와드 아이시(El-Wad Aïssi) 애도

(<http://matoub.rebelle.free.fr/le-rebelle/yehzen-lwad-aisi.php>(검색일: 2018.05.02)).

한국어	타마지그어	불어
<엘-와드 아이시를 애도하며>	<Yehzen Lwad Aëisi>	<El-Wad Aïssi en deuil>
엘-와드 아이시를 애도하며 폭동이 시작된 이래로. 밤에는 군인들이 폭행을 시작했다.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사람들이 티지로 몰려 들었다. 모든 거리는 거품이 일고 있었다. 왜 그들은 끓는거야? 이것은 치매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들이 우리를 당황하게하기 전에,	Yehzen Lwad Aëisi Mi-gebda imenyi Yebb°ed-iten deg-yid Tuddar slant irk°elli Subbent yer Tizi Kul abrid a yettfeggid Aayen a yettfeggid Ur telli t-tisselbi Nehwağ tilelli	Deuil sur El-Wad Aïssi Depuis le début des émeutes. Nuit venue, soldats grim pant à l'assaut. Tous les villages alertés, Le peuple afflua vers Tizi. Toutes les rues bouillonnaient; Pourquoi bouillonnaient-elles ? Ce n'est pas là démence ! Nous voulons la liberté, Allons, avant qu'ils nous mènent au

2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5146&cid=59014&categoryId=59014> (검색일: 2018.04.26.).

서. Uqbel a γ-herren yer lhiq peloton.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될 것이다. Akken nella zik an-nili Tels que nous fûmes, nous serons;
다. Ma yella imenyi Si des luttes se déclarent,
투쟁이 일어나면, W'immuten a d-yennerni Le fils succédera à son père succombant.
아들은 굴복한 아버지를 이을 것이다. mmi-s Hommes du pouvoir, pourquoi ce supplice
권력자들, 왜 이 고문? A wid ihekmen ayenni ?
보아라, 우리는 양떼가 아니다 : Ur nelli d ulli Voyez, nous ne sommes pas un troupeau:
우리 조국의 기초가 보인다. Tamurt iban-d llas-is Les fondations de notre patrie sont
타마지그는 그것의 재물을 부을 것이다. Tamaziyt at-tennerni visibles.
그리고 우리는 치명적인 농향을 죽일 Arsed ad yeffi Tamazight épanchera ses richesses
것이다. Kul lhağa tessea bab-is Et nous crèverons l'abcès funeste: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Il n'est pas d'être qui n'ait de racines.

그리고 이것은 불을 선언했다, 그것은 I tmes i-gceelen m'at-texsi Et ce feu déclaré, s'éteindra-t-il?
스스로를 소멸시킬 것인가? Yeqqim-d usteqsi Demeure l'angoisse face à l'épreuve.
고난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Uzzal igezm-it ššdid La rouille a rongé le fer.
녹은 철분을 먹었다. Ma d l'esker yebb'ed Tizi Mais l'armée occupe Tizi,
그러나 근대는 티지 (Tizi) D lbaţel i-gebb'i Y semant l'oppression.
억압 파충. 알제국의 도로가 잘리고, Fer Lezzayer yegzem Vers Alger les routes sont coupées,
왜 다르지? Ayen yegzem webrid Pourquoi sont-elles coupées ?
우리 지구가 흔들렸다. Tendeh tmurt irk'elli Notre terre est ébranlée:
싸울 준비, 방어! Begset ya l'yci Soyez prêts à combattre, garde !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멍에 아래에 두 Furwat a γ-cudden s lqid Qu'ils ne nous remettent sous leur joug !
게 하라! Teg'ra-d s idim ma yeyli Si notre sang devait couler,
L'honneur en jaillirait.

우리의 피가 흐를 경우, Nnif a d-yali Nous sommes depuis toujours dans les
멍에가 돋보인다. Si zzman nesfa-d ur troubles,
우리는 항상 곤경에 처했다. Ayen ur nerkid Pourquoi dans les troubles ?
왜 문제가 되는가? Rruman seg-ney yebbi Les Romains nous ont mutilés.
로마인이 우리를 훼손했다. Wi d-yusan yebb'i Qui nous envahit nous pille:
우리를 침략 한 자가 약탈한다. Nezga nezdey di ttwehid Et nous demeurons subjugués.
그리고 우리는 정복당했다. Xas eddan leqrun nugi En dépit des siècles passés, nous nous
지난 수세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Neched s ujenwi insurgions:
로를 수습하고 있다. Mi γ-d-bb'in awal ajdid Ce n'est que sous le tranchant de l'épée
검의 가장자리 아래에서만 Que nous nous sommes soumis à la
우리가 새 단어를 제출다. parole nouvelle.

무기와 개로 그들은 준비가 끝났다. S yeqjan d leslaḥ begsen Avec armes et chiens, ils se sont apprêtés;
함정에 진실을 한 자들. Akken ad kublen Afin de prendre au pièg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tidett Ceux qui ont érucé la vérité.
우리는 운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Achal deg widak ḥebesen Combien parmi ceux capturés,
그들이 가슴에 화병을 넣었다. Ur nezri ma ddrren Combien dont nous ignorons le sort ?
그들의 무기로 그들은 보냈고. S icwi rran-aγ tirgett Ils ont posé un brasier dans notre poitrine.
그들의 무기로, 그들은 지적했다. T-tirebba i ten-id-ceggēen Ils les envoyèrent par meutes,
산 : "그것을 먹어라!" S leslaḥ nnsen De leurs armes, ils désignèrent
ččēt-ettt adrar La montagne: "Dévorez-la !"

그들은 24 살이었고, Di rebea u ecrin yid-sen Ils étaient vingt-quatre,
그들이 압수 한 티지에서 불이났다. Begsen-d bb'in-ten Dont ils se saisirent
그러나 그들은 형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 버렸다. Mi tzeḥher tmes di Tizi Lorsque le feu grondait à Tizi.
그들은 풀이 널 준비가 되었다. Ttun sean atmaten Mais ils avaient oublié qu'ils avaient des
그들은 모두 그들의 말을 천했다. Aa ten-id-yessufyen frères
Myefkan leahed irkelli Prêts à les libérer.
Ils s'étaient tous donnés parole.

그들은 그들을 괴롭혔다. Behten-ten wwten-ten Ils les harcelèrent, les frappèrent:
그들이 학대 한 적은 없다. Ulac acu ur sen-xdimen Pas de sévices qu'ils ne leur firent subir
고백하지 말라. A d-inin ayen ur nelli Pour avouer ce qui n'est pas.
Djurdjura는 그(것)들을 자유롭게 보는 Gerger yefreh mi d-ffyen Le Djurdjura se réjouit de les voir libres;
것을 기뻐한다. Yark' yehwağ-iten Il a besoin de tous ses enfants.
그는 모든 아이들을 필요로 한다. Mlalen-d di Lwad Aeisi Ils se rencontrèrent à El-Wad Aissi.
그들은 El-Wad Aissi에서 만났다. Ma d widak yessefsaden Quant à ceux qui sèment les saccages,
자루에 뿌린 사람들에 관해서는. Assa nerna-ten Aujourd'hui, nous les avons vaincus:
오늘, 우리는 그들을 패배 시켰다. Sqef n teedawt yeyli Le toit de l'adversité a croulé
역경의 지붕이 무너졌다.

베르베르문화운동, 민주주의 운동가, 시민사회 당사자 등이 주축이 되어 1980년 4월 20일 발생한 ‘베르베르의 봄’의 의미를 새기는 축제를 벌였으며 2018년으로 38회를 맞이했다. 이날 카빌리 지역 전역에서 축제가 벌어졌다. 스포츠로 우의를 다지며, HCA와 미디어에서는 베르베르어 운동을 추진하고자 했다. 각종 페스티발이 개최되고, 전시와 영화제, 원탁회의, 음악회, 행진, 스포츠 전시, 문화 경연 등이 펼쳐졌다. 페스티발이 펼쳐지는 도시는 주로 Khenchela와 Batna²⁴⁾, Souk-Ahras(알제리와 튀니지 국경 지역)와

Ghardaia²⁵⁾등과 같이 카빌리에 국한되지 않고 베르베르어권 전 도시에 걸쳐서 열렸다. 물루드 맘무리와 같은 학자들의 추모 행사 또한 아카데미한 기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런 일련의 행사들은 ‘소수자’인 베르베르인들의 활동과 영역을 알제리 사회 내에서 확산시켜 가는 것이었다(Hamadi, 2017).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마투브의 암살에서 확산되었음은 알제리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마투브의 저항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종교적 사고, 종교적 광신, 언어에 대한 집념 그리고 지역의 배제에 대한 반항이었다. 그것은 ‘중심’에 대한 ‘주변’ 혹은 ‘소수자’의 저항이었다. 그에 관한 기록은 현재 알제리의 모든 변화, 고통, 희망, 꿈, 역설 등을 생생히 증언으로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베르베르인의 민족사는 북아프리카와 함께 공유된다. 그는 ‘해설자’였으며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예술가이며 진보주의자였다. 그는 항상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홀로 있는 것이 무서운 심판이며 끔찍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래를 통해 원칙, 진실과 부정에 대해 노래하며 현실의 추악함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Matoub 1995, p.15-17). 마투브는 그의 생애도 물론이지만 죽음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노래를 통해 베르베르인의 문화적, 정치적 요구를 승화시킴으로서 베르베르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알제리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V. 맺음말

알제리 현대사는 프랑스 제 5공화국이 출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이후 프랑스 제 5공화국은 알제리 사회의 변혁과 맥을 같이 했다. 그 중심에는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당시 프랑스 내 베르베르 이민자들은 자국 내의 아랍·이슬람화 정책, 즉 ‘중심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을 이끌었다. 프랑스 68혁명의 핵심은 ‘동일성’으로 구축된 시공간을 중시하는 근대를 해체시키면서 탈근대의 다양성이라는 화두를 제공해주었기에, 아랍·이슬람화 정책에 의한 ‘중심주의’ 정책은 많은 베르베르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아프리카의 식민 국가들은 독립 후 탈식민화 정책을 통해 서구의 식민주의적 담론을 넘어서려고 했지만 새롭게 구성된 정부는 서구의 근대가 해왔던 ‘동일성’, ‘중심주의’적 성격을 가진 국가의 정체성을 꾸러가고자 했다(김광수). 본고에서 언급한 알제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알제리는 독립과 동시에 강력한 아랍·이슬람화 정책을 추구했다. 이 시기는 68혁명의 파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기였으며 알제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수자’로 머물던 프랑스내의 알제리 베르베르 이민자와 알제리 내의 베르베르인들은 타자화 된 자신들을 통해 사회의 변혁을 주도해가고자 했다.

본고에서 우리는 알제리에서 진행된 아랍·이슬람화 정책이라는 권력과 타자화된 소수 문화의 억압 상황을 살펴보았다. ‘중심’으로서의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수자’에게는 상당한 억압이자 상처를 남겨주었다. 중심이자 다수인 권력에 맞서 ‘소수자’ 운동이

24) 알제리 동남부의 베르베르어권 지역으로, 이 지역민들을 카빌리 다음으로 큰 종족인 ‘샤우이’(Chaoui)라고 부른다.

25) 사하라 북쪽 지역으로 수도 알제에서 약 700km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이슬람의 이바디즘(Ibadism)을 믿는 지역으로, 이들 종족을 모자비트(Mozabite)라고 부른다.

급진적으로 전개된 시점은 1980년대 베르베르운동을 통해서이다. 특히 마투브 루네스는 노래를 통해 저항했고, 이후 암살을 당하면서 알제리 사회에서 억압의 상징이자, ‘차이’의 정치, ‘차이’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상징이 되었다.

‘베르베르 봄’과 마투브 루네스의 암살은 베르베르어를 알제리의 공식어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안겨 주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베르베르인이 사는 지역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1988년 다당제가 실현됐지만, 1990년대의 암흑의 시기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베르베르인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다. 마투브는 알제리 정권과 이슬람주의자들에 맞서 저항의 노래를 했으며, 베르베르의 정체성 인정을 주장했었다. 그의 노래는 세속적이면서도 진보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슬픔과 애도 그리고 국가의 분쟁을 담고 있었다(Matoub 1995, p.80-81).

마투브 루네스의 암살은 알제리 사회에서 금기시된 용어이다. 하지만 그가 외친 해방과 다양성 인정, 소수문화에 대한 요구는 이제 알제리 사회가 지향하는 현상이 되고 있다. 그는 자유와 다양성, 차이의 상징어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이슬람주의자들에게는 알제리를 분열시키는 인물로 각인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그를 통해 알제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소수자’ 운동(베르베르운동)이 현재 다수자의 위치를 점해가면서 알제리 내 문화의 다양성을 주도해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다. 베르베르어의 공식어 인정, ‘옌나예르’의 공식 축일 인정 등 이전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의 파고가 오늘날 알제리 사회에서 일고 있다.

참고문헌

- 김광수, 「탄자니아 언어정책과 국가건설에 대한 역사적 고찰: 독립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韓國 아프리카 學會誌』 제28집, p.3-40.
- 임기대, 「독립 후(1965-1978) 알제리의 언어 교육정책: 탈식민화 과정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연구』 제 52집(2010), p.359-384.
- 임기대, 「프랑스 내 ‘베르베르인’의 이민 과정과 그 위상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 42집(2016). p.131-163.
- 임기대, 「카세린 주’의 불안정이 튀니지와 인접국가 알제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101집(2017). p.303-332.
-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 포스트모던 사회문화론(Simulacres et Simulation)』, (al 민음사, 2001), 하태환 옮김.
- 최은순, 「지중해 연안의 링구아 프랑카의 교류의 특징과 그 유형에 관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제 16권 제 4호(2014). p.75-103.
- Bouhadiba Farouk, “La question linguistique en Algérie: Quelques éléments de réflexion pour un aménagement linguistique”, In *Dakhliya, J. Trames de langues: Usages et métissages linguistiques dans l’histoire du Maghreb* (Paris: Maisonneuve et Larose, 2004).
- Bourdieu, Pierre.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Brett, Michael and Fentress, Elizabeth. *The Berbers*. (Oxford and Cambridge: Blackwell, 1996).
- Chaker, Rachid. “Journal des évènements de Kabylie.” *Les Temps Modernes*, No. 432-433, 383-436, (Juillet-Août, 1982).
- Hitchner, R. Bruce. “The Berbers by Michael Brett and Elizabeth Fentress.”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103(2): 380-381, (1999).
- Korpe, Marie(ed.). *Shoot the Singer!: Music Censorship Today*. (London and New York: Zed Books, 2004).
- Lacoste-Dujardin, Camille and Lacostes, Yves. *Maghreb, peuples et civilisations* (La Découverte, 2004).
- Matoub, Lounès. *Rebelle*. (Paris: Stock, 1995).
- Roberts, Hugh J. R. “The Economics of Berberism: the Material Basis of the Kabyle Question in Contemporary Algeria.” *Government and Opposition* 18(2): 218-235, (1983).
- Silverstein, Paul A. “”The Rebel is Dead. Long Live the Martyr”: Kabyle Mobilization and the Assassination of Lounes Matoub.” *Middle East Report* 208: 3-4, (1998).

인터넷 자료(Internet Sources)

Abane Ramdane - https://en.wikipedia.org/wiki/Abane_Ramdane(검색일 :)

- 2018.05.02.).
- Abdallah, Zena. 2017. "Is Algeria an Arab Country?" Quora, November 25, 2016. <https://www.quora.com/Is-Algeria-an-Arab-Country> (검색일: 2018. 04. 26.).
- amazighité의 정의 - <https://fr.wiktionary.org/wiki/amazighit%C3%A9> (검색일: 2018.04.26.).
- Benoudjit, Hakim. 2017. "Is Algeria an Arab Country?" Quora, August 27, 2017. <https://www.quora.com/Is-Algeria-an-Arab-Country> (검색일: 2018. 04. 26.).
- Chahouddi, Ziaddinè Sélim Chahoud. 2018. "Is Algeria an Arab Country?" Quora, January 30, 2017. <https://www.quora.com/Is-Algeria-an-Arab-Country>
- Ghanmi, Lamine. 2018. "Celebrating Berber New Year Marks Shift in Algeria's Identity Politics." The Arab Weekly, January 07, 2018. <https://thearabweekly.com/celebrating-berber-new-year-marks-shift-algerias-identity-politics>(검색일: 2018.04.26.).
- Hamadi, Ryad. 2017. "Printemps berbère : le pouvoir tente de s'approprier le « 20 avril »." TSA(Tout sur l'Algérie), Avril 12, 2017. <https://www.tsa-algerie.com/printemps-berbere-le-pouvoir-tent-de-sapproprier-le-20-avril/>(검색일: 2018.03.08.).
- Khiari, Ahmed Y. 2018. "Is Algeria an Arab Country?" Quora, January 30, 2017. <https://www.quora.com/Is-Algeria-an-Arab-Country> (검색일: 2018. 04. 26.).
- Krim Belkacem - http://www.amazighworld.org/history/personalities/krim_belkacem.php (검색일: 2018.05.02.).
- Mansour, Massinissa. 2017. "Assassinat de Matoub Lounès/ Nordine Aït Hamouda affirme connaître les auteurs." Algeria Focus, Juillet 1, 2017. <http://www.algerie-focus.com/2017/07/assassinat-de-matoub-lounes-nordine-ait-hamouda-affirme-connaître-auteurs/> (검색일: 2018.03.06.).
- Masin. 2004. "Mouloud Mammeri et le Printemps berbère..." Tamazgha, Février 29, 2004. <http://www.tamazgha.fr/Mouloud-Mammeri-et-le-Printemps-berbere,539.html> (검색일: 2018.04.27.).
- Mimoun, Jeo. 2016. "Is Algeria an Arab Country?" Quora, May 07, 2016. <https://www.quora.com/Is-Algeria-an-Arab-Country> (검색일: 2018. 04. 26.).
- Morgan, Andy. 2011. "MATOUB LOUNES - A lifetime dancing with death." January 10, 2011. <http://www.andymorganwrites.com/matoub-lounes-a-life-that-danced-with-death/>(검색일 : 2018.05.06.).
- Strand, Cassandra. 2012. "Is Algeria an Arab Country?" Quora, December 15, 2017.

<https://www.quora.com/Is-Algeria-an-Arab-Country> (검색일: 2018. 04. 26.).

알제리 독립전쟁에 관한 블로그 - <https://angeldean.blog.me/150137282214> (검색일: 2018.04.20.).

아마지그월드, 2016, 벤 벨라 담화 1962년 7월 5일, <http://www.amazighworld.org/history/amazighophobia/algeria/ben%20bella/index.php> (검색일: 2018.07.15.).

언론자료

tamazgha.fr. Tamazight langue officielle, un mensonge politique, 2014.06.24.

Tout sur l'Algérie, Les Algériens savent-ils réellement quelle est leur langue? 2015.04.23.

Kabylie News. Les arabes ne comprennent pas la langue des algérienne, 2015.07.27.

<Abstract>

The French Revolution of 1968 and the Decentralism of Algeria
- Berber minority rights -

Lim Gi-Dae, Kim Kwang-Su

The 1968 Revolution influenced the social change of France as well as the decolonization process of the Third World nations including Algeria. Like other African countries, Algeria has also pursued post-colonialization policies through Arabization and Islamization policies. However, Arabic and Islamization policies have created a paradoxical phenomenon that suppresses indigenous culture in the Algerian society. The Berber people, who have an indigenous culture, struggled through resistance later in Algeria, in a similar way to the 1968 Revolution, which has been a typical rebel against the "center" of modernity.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key elements of Arabization and Islamization policy based on language and the situations of the Berbers who were marginalized by this policy. As a result of the failure of the Arabiza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formed after independence, the resulting reaction of the Berbers to the power of the 'center' and the resistance of the minority in the Algerian society began to increase. Especially, the murder of the Kabyle singer Matoub Lounès, who sang songs about "the spring of Berber" as well as resistance, peace, and hope, caused a tremendous stir in the Algerian society and caused cultural changes. Paradoxically, the Arabization and Islamization policy has highlighted the presence of Berber culture. Through these series of events, Berber cultur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eading the Algerian societ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t seems that the role of one 'minority' individual, Matoub Lounès, cannot be ignored. He put the Berber culture, which was in the status of the 'minority', in the domain of the 'majority' and became the principal agent of the social change in Algeria toda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dlarleo@hanmail.ne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frikaans@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1. 프랑스 68혁명(French Revolution of 1968)
2. 탈식민화정책(decolonization)
3. 아랍-이슬람(Arab-Islam)
4. 알제리 베르베르(Algeria's Berber)
5. 마투브루네스(Matoub Lounès)